

정월, 과 불의 민속

글 | 김혜진 | 편집 | 조민숙 | 발행 | 화영연구소

李二(哪)姐(呀)張六(這)嫂,
 저기 누님, 여기 형수님,
 房儿(哪)里邊聽見了,
 방안에서 들었네,
 鑼鼓喧天(呀)好熱(這)鬧(呀),
 징소리 북소리에 천지가 정말 떠들썩한걸,
 梳洗打扮去把燈儿瞧,
 머리 빗고 꽃단장하고 등불 구경하러 가네.

이것은 중국 서북부, “아홉 번 굽고 열여덟 번 휘어(九曲十八彎)” 흐른다는 황하(黃河)의 중류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월에 부르는 구곡양가(九曲秧歌)라는 민요다. 청해성(青海省)에서 발원한 황하는 거대한 “几”자 모양을 하고 있다. 그중 중류 지역인 내몽고(內蒙古)에서 하남성(河南省)까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흐르는데 이곳이 바로 진심협곡(晉陝峽谷)이며, 이 협곡의 양쪽에 있는 산서성(山西省)과 섬서성(陝西省)에서는 매년 정월이면 위와 같은 민요가 곁들여진 흥겨운 음악과 함께 즐거운 놀이판이 벌어진다. 음악과 춤이 한데 어우러진 이 놀이를 양가(秧歌)라고 하는데, 적게는 1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까지 참여한다. 이 양가 중에서도 구곡황하등(九曲黃河燈)이라는 특이한 등진(燈陣)을 돌면서 하는 것이 바로 위에 인용된 구곡양가(九曲秧歌)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 황하 유역에서 행해지는 불과 관련된 정월 풍속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동시에 봄(春)이 시작되는 달이며, 1년 중 바쁜 농사일도 없는 시기라서 다양한 세시행사가 집중되어 있다. 이중에서도 정월 초하루부터 십오일까지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때에 적게는 한 마을에서 많게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모여 양가를 비롯한 각종 놀이판을 벌인다. 이곳 사람들은 이를 ‘사회(社火)’라고 한다. 즉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이 아니라 지역적인 공동체를 단위로 이루어지며, 사람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도 함께 즐기는 시간인 것이고¹⁾, 꼭 불(火)이 함께 동반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불을 세 가지, 즉 한기를 몰아내는 불, 어둠을 밝히는 불, 소리를 내는 불로 나누어 살펴본다.





1. 한기(寒氣)를 몰아내는 불



〈그림 1〉 출입구의 파문탄

산서성과 섬서성에서는 제석(除夕)이나 정월 초하루 마당과 문에 검은 석탄을 놓는다. 어떤 곳은 석탄을 쌓아놓고 불을 피우기도 하고, 어떤 곳은 붉은 종이나 끈으로 석탄을 싸서 대문 양옆 바닥에 놓거나 걸어두기도

한다. 청 건륭 연간에 편찬된 『대동부지(大同府志)』를 보면 “원단(元旦)이 되면, 불을 붙인 석탄을 문 앞에 부도(浮圖)처럼 쌓아놓는데, 이를 ‘왕화(旺火)’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필자는 산서성 유림현(柳林縣)에서 설(春節)을 보내면서 방문과 대문 앞에 붉은 종으로 싸인 석탄을 놓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곳에서는 이것을 ‘파문탄(把門炭)’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왜 석탄을 놓을까? 이러한 풍속은 중국 고대의 나례(儺禮²⁾)와 관계가 있다. 나(儺)는 고대에 각 계절의 말일에 거행하던 송기(送氣, 즉 送舊氣) 행사로서, 기가 맞지 않으면 역병이 생긴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즉 특정 계절에는 그에 부합하는 기가 있으므로, 이전 계절의 기는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1년은 사시(四時)가 있어 이론상으로는 4회의 나례가 있지만, 실제로는 춘나(春儺)·추나(秋儺)·동나(冬儺) 3회를 거행하였다. 춘나와 동나는 음기(陰氣)를 보내는 행사였고, 추나는 양기(陽氣)를 보내는 행사였다. 그리고 춘나와 추나가 지배계급에만 한정된

데 반하여 동나는 서민들까지 포함되었다. 그래서 동나를 대나(大儺) 또는 향나(鄉儺)라고도 하였고, 시기는 12월이었다. 동나를 행하는 시기나 내용은 각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지만 벽사 또는 재앙을 막는다는 의미는 계속 전승되어 왔다. 그리하여 지역에 따라서는 불을 피워 가정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석탄은 나무와 같은 땀감에 비해 더욱 더 뜨거움과 강렬함이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히 한기를 물리치고 액을 태우고도 남음이 있다. 장차 다가올 봄을 위해 음기와 한기를 몰아내고 양기(陽氣)와 온기를 복돋는 가장 적합한 매개체인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산서성을 비롯한 화북 지역이 석탄의 주요 생산지라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 지역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석탄을 호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섬서성 연안(延安) 지역에서는 석탄을 끈으로 묶어 문이나 담장에 걸어두는데, 이를 흑호(黑虎)라고 부른다. 호랑이는 용맹을 상징하고, 그래서 신체 각 부분이 귀한 약재로 쓰이며, 심지어 민간에서는 신성화되어 역병을 몰아내는 기능도 갖고 있다. 석탄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궁이에서 태워지는 훌륭한 연료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는 그 속성상 ‘송기구역(送氣驅疫)’의 기능을 갖고 있다.

2. 어둠을 밝히는 불

중국에서는 원소절(정월대보름)을 등절(燈節)이라고도 부른다. 등은 원소절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등을 이용하는지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어떤 곳은 집과 거리를 환히 밝혀 사람들이 구경하게 하고(觀燈), 어떤 곳은 다양각색의 등이 한 곳에 모여 제각기 우수함을 뽐내고(賽燈), 어떤 곳은 온 마을 사람들이 등을 가지고 나와 기다란 용처럼 줄을 만들어 마을 곳곳을 행진(遊燈)하기도 한다. 그런데 산서성과 섬서성의 일부 지역에서는 특이한 등진(燈陣)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 진을 걸어가게 한다. 이를 ‘구곡황하등’이라고 한다.³⁾

1) 촛는 토지신, 화는 화신을 상징한다. 물론 고대의 사일(社田)은 정월이 아니라 춘분과 추분 전후로 1년에 2회가 있었다.

2) 더욱 직접적인 것으로 ‘정료(儺寮)’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3) 구곡황하등 풍속은 산서와 섬서 외에도, 청해성과 허북성 및 신동성 등에도 전해지고 있다.

구곡황하등은 황하구곡등(黃河九曲燈) 또는 전구곡(轉九曲)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한 기록은 명(明) 숭정(崇禎) 8년(1635)에 지어진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 「정월(正月)」에 보인다. “11일부터 16일까지 향촌의 사람들은 수숫대를 묶어 붕(棚)을 만들고 주위에 여러 가지 등을 매단다. 땅은 2무(畝) 정도의 넓이이며, 문(을 들어서면) 길이 굽이굽이 교묘하게 3~4리에 걸쳐 감추어져 있어, 길을 잘못 들면 오랫동안 길을 헤매다가 나오지 못한다. 이를 황하구곡등이라고 한다.”⁴⁾ 그리고 청대(清代) 산서와 섬서의 지방지에도 이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황하에 인접한 지역뿐만 아니라 먼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기록 시기로는 강희56년(1717)에서 1944년에 이르기까지 청대는 물론 중화민국시기까지 나타나고 있다.⁵⁾

여기에서 구곡(九曲)은 나무나 수숫대 등을 땅에 꽂아 만든 굽은 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바둑판과 같이 가로 19줄과 세로 19줄에 기둥 361개를 세우고 그 위에 등을 올려놓는다.⁶⁾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인 등보(燈譜, 燈圖)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부를 미로처럼 연결하여 입구부터 출구까지 중복됨이 없이 모든 등을 지날 수 있다. 등 1개는 하루를 의미하며, 전체를 지나면 1년을 지난 셈이 된다. 등진은 2무(약 400평) 정도 되는 마을의 공터에 설치한다. 여기에 설치하는 등은 화려하진 않다. 지방지에서는 이곳이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많은 등이 질서 정연하게 서있어 대단한 장관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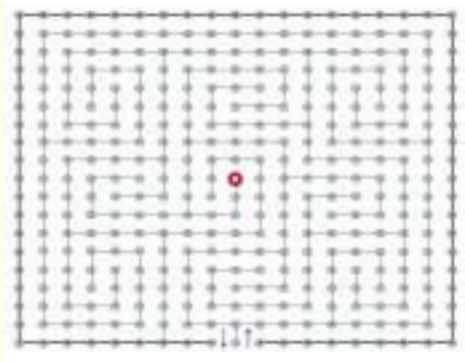
혹자는 이 구곡황하등이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



(출처 : <http://bbs.huash.com>)



(출처 : 溫幸, 薛麥喜 主編, 《山西民俗》, 山西人民出版社, 1991年, 489쪽)



(구곡황하등 등진도)

〈그림 2〉 구곡황하등

고, 혹자는 전통 군사문화에서 기인한다고도 한다. 모두 일리가 있는 견해다. 그런데 원류의 문제를 규명하기보다 어째서 원소절에 이러한 특이한 진(陣)을 만들어 걷는지가 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역의 지방지에는 황하구곡등이 없는 지역에서 “대보름 전후 3일간 등을 걸고, 십육일에는 남자가 무리를 지어 걷는데 이를 ‘주백병(走百病)’이라 일컫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주백병이란 걸음으로써 온갖 병을 물

4) 『帝京景物略』 「正月」: “十一日至十六日, 鄉村人縛秫秸作棚, 周懸雜燈, 地廣二畝, 門徑曲黠, 藏三四里, 入者誤不得逕, 卽久迷不出, 曰黃河九曲燈.”

5) 다음의 지방지에 기록되어 있다. 『定襄縣志』(1712), 『寧縣志』(1756), 『河曲縣志』(1872), 『武鄉縣志』(1929), 『解州志』(1717), 『孟縣志』(1882), 『文水縣志』(1883), 『石樓縣志』(1730), 『沁州志』(1741), 『沁源縣志』(1933), 『米脂縣志』(1944).

6) 등의 개수는 지역에 따라 360잔을 놓기도 하고, 365잔을 놓기도 한다. 360잔인 경우 출입구의 기둥에는 등을 놓지 않는다. 365잔인 경우에는 361잔에 문등(門燈) 3잔과 천등(天燈) 1잔을 더 놓는다. 360잔을 놓는 것이 오래되었고, 365잔은 현대에 들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리친다는 뜻이다. 황하구곡등에서는 등을 밝히는 것과 걸음으로써 병을 물리치는 것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등을 구경하고, 한편으로는 작은 공간이지만 구불구불하여 긴 길을 걷는다. 그 길은 단순한 어둠의 길이 아니라 특수한 효능을 지닌 밝음의 길이다. 대보름의 등에는 또 생육 및 자손번성의 뜻이 담겨있다. 농업사회에서 노동력은 곧바로 생산력과 직결되었으므로 자손 번창의 소망을 등에 담아 기원하였던 것이다.

3. 소리를 내는 불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제석(除夕)에 잠들기 전 문을 닫으면서 폭죽을 터트리고, 초하루 아침 닭이 울면 일어나서 문을 열며 또 폭죽을 터트린다. 이것을 각각 관문포(關門砲)와 개문포(開門砲)라 한다. 산서성 유림현에서는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문을 열면서 폭죽을 터트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항상 폭죽이 동반된다. 조상의 묘소를 찾아 제를 올릴 때도, 마을의 제당에 있는 신에게 예를 올릴 때도 꼭 필요하다.

1990년대에 중국은 대도시에서 명절에 폭죽 터트리는 것을 금지하였다. 폭죽으로 인한 소음과 인명 피해가 상당히 컸기 때문이었다.



〈그림 3〉 개문포

그렇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점차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마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랜 전통을 일순간에 금지

하는 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폭죽에 대한 가장 빠른 기록은 『형초세시기(荆楚歲時記)』에 나온다.⁷⁾ 당시의 폭죽은 단순히 대나무를 태워 소리를 내는 것이었고, 화약을 넣은 폭죽은 송대에 들어서야 출현하였다. 그리고 폭죽이라는 명칭 외에 포장(炮仗)·폭장(爆仗)·편포(鞭砲) 등으로도 불렸다. 화약을 넣은 폭죽의 출현은 이 풍속의 전국적인 확산을 가져왔다.

초하루에 대나무를 태우는 것은 고대 국가의례인 ‘정료(庭燎)’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정료란 원일(元日)에 마당에서 나무를 태우는 것이다. 『후한서·예의지』에는 원일에 대한 유소(劉昭)의 주해가 있다. “천자가 덕양전에 가서 만조백관의 하례를 받고, 그 다음 만(蠻)·맥(貊)·호(胡)·강(羌) 등의 조공을 받은 다음 정료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형초세시기』에 근거하면, 정료는 위진남북조에 들어서 민간에서도 행해졌다.⁸⁾

정료의 목적은 귀신을 쫓고 액을 면하기 위해서였다. 폭죽을 터트리는 것도 형초세시기에 의하면 귀신을 물리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폭죽의 무엇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전에 ‘연(年)’이라는 짐승이 살았는데, 해가 바뀔 때마다 와서 사람들을 해하였다. 그러다 어느 해인가 사람을 해하려는 중 갑자기 터진 폭죽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도망을 갔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짐승이 폭죽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해마다 새해가 되면 폭죽을 터트렸다.”

여하튼 폭죽은 송구영신의 상징물이 되었고, 명절을 명절답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송대 왕안석(王安石)의 「원일(元日)」이란 시에 “폭죽 소리에 한 해가 가고, 도소주를 마시니 따뜻한 봄이 오구나. (爆竹聲中一歲除, 春風送暖入屠蘇.)”라는 구절이 있다. 지금도 중국의 모든 향촌에서는 어디를 막론하고 떠들썩한 폭죽소리로 새해를 맞이한다. (☺)

7) “正月一日是三元之日也, 謂之端月. 雞鳴而起, 先於庭前爆竹, 而避山臊惡鬼.”
8) 『詩經』「小雅·庭燎」: “庭燎之光”. 전체 내용은 蕭放·許明堂, 『春節』, 57~58쪽, 中國社會出版社, 2006년 참조